



“기회는 공정하게! 희망은 다같이!”

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

제 공 일 : 2012. 5. 14.
제 공 자 :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
과 장 : 주 원 철
사무관 : 이 행 우
전 화 : 500-1877
쪽 수 : 3P
별첨자료 : 없음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2012년 5월 16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러시아 극동지역(연해주, 아무르주, 하바로프스크주)

해외 농업환경 정책조사 시작

- 신규 유망 농업투자사업 발굴 및 농산물의 내륙 유통경로 현황 등 -

〈 주 요 내 용 〉

- ◇ 러시아 극동 3개주 대상 해외농업 환경 조사 실시
 - 일 시 : 5월 16일부터 6월 2일(15일간)
 - 대 상 : 연해주, 아무르주, 하바로프스크주
 - 조사단 : 농식품부 조재호 국제협력국장(단장), 농촌진흥청, 한국농어촌공사, 농협중앙회, 민간기업 관계자
 - 조사 분야 : 방문지역의 농업인프라, 작물재배현황, 농업정책과 법률, 토지 제도, 물류유통 현황, 국내·외 기업의 농업투자 사례 등
 - 조사 결과 활용 : 러시아 극동지역의 신규 유망 농업투자사업 발굴 및 향후 한-러 농업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

□ 농림수산식품부(장관 서규용)는 5월 16일부터 6월 2일까지 15일간 러시아 극동 3개 주(연해주, 아무르주, 하바로프스크주)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해외농업환경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○ 조사단은 농식품부(단장: 조재호 국제협력국장)를 비롯하여 농촌진흥청, 한국농어촌공사, 농협중앙회, 민간전문가로 구성 되어 있으며,

○ 대상지역의 농업 인프라 및 적합 작물, 유통 및 물류 현황, 기업 활동을 위한 법률 및 토지제도, 현지 국내·외 기업의 농업분야 투자 사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조사단은 연해주 주정부 농업담당 부지사(시도렌코 세르게이 삐뜨로비치)를 만나 극동지역 유흥지 임대 관련 사항, 우리기업의 블라디보스톡 항 활용방안, 한국진출기업에 대한 주정부 협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.

□ 현재 러시아 전체 농지의 1/4인 4천만ha가 경작되지 않고 있으며,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유흥농지를 한국, 일본, 싱가포르 등에서 임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.

□ 한편, 러시아 연해주에는 20여년 전부터 많은 한국 농기업이 진출해 있으며, 연해주 등 극동지역은 러시아 진출 농기업의 90%가 위치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곳이다.

○ 이번 농식품부의 농업환경조사는 기업들에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여 해외농업투자 의욕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된 러시아 극동지역의 농업 투자 정보를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해외농업 개발 포털사이트(www.odas.or.kr) 등을 통해 관련 기업과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, 진출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결과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.